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5월 29일(주일) 제1395호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진.

2022 마리아행진 '하나님 나라'

6월 22~23일 각 캠퍼스, 2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현장 모집

2022 마리아행진이 6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막 오른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6월 22일과 23일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집회가 진행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의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6월 24일에는 서빙고온누

리교회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2022 마리아행진 주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에서 따왔다. 이번 마리아행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할 예정이다. 강의는 6월 22일(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23일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정근두 목사, 24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참가신청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받는다.

다. 5월 28일(토)~29일(주일), 6월 4일(토)~5일(주일), 6월 1일과 8일 수요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만 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만 원이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배와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대학청년부, '기드온의 300 용사' 모집

대학청년부 2022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를 위한 연합중보 기도팀 '기드온의 300 용사'를 모집한다.

2022 카운트다운 연합중보기도팀 '기드온의 300 용사'는 5월 22일(주일)부터 6월 30일(수)까지 매일 밤 11시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1.1.1 기도운동'을 이어간다. 6월 10일(금)과 17일(금)에는 오후 8시 중보기도회를 한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어 예배와 선교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포함된 구글폼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하단 QR 코드 참고). 지원서에는 '소속 공동체, 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한편 2022 카운트다운 '킹덤 파이오니어' 홍보서포터즈가 5월 29일(일) 첫 모임을 한다.

문의: 010-7667-411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5월 29일까지 달려라풍당 챌린지 참가자 모집

현재까지 4,470여 명 참가

달려라풍당 챌린지 참가신청이 곧 마무리된다. 5월 29일(일)까지 '체리애플'과 '네이버 폼'에서 달려라풍당 챌린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체리애플을 내려받은 성도는 회원가입을 하고 'MY 단체'에 CGNTV를 추가하면 달려라풍당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을 한 성도들에게는 기념품과 미션캘린더가 배송된다.

다. 미션캘린더에 운동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달려라풍당 챌린지는 6월 6일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풍당교회학교'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풍당교회학교'는 CGNTV가 전국 200개 교회의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4,470여 명이 챌린지에 참가했다.



선교사 쉼터 '조이하우스' 완공

Acst29비전빌리지에서 완공감사예배 드려

Acst29비전빌리지에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조이하우스'가 완공됐다. 조이하우스는 대지면적 654.00㎡(197.8평), 연면적 467.96㎡(141.6평)으로 지상 1층 커뮤니티 공간, 2~4층은 각 2가구(총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로 꾸며졌다. 조이하우스는 주로 안식년 선교사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수) Acst29비전빌리지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조이하우스 완공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임훈 장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이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종"이라며 "조이하우스가 많은 에바브로디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귀하게 여기는 집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우크라이나 긴급구호팀 출국!

6월 2일까지 몰도바에서 난민 지원사역

NGO 더멋진세상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구호팀이 출국했다. 지난 5월 25일(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한 우크라이나 긴급구호팀은 몰도바 스페우니임시수용소와 협력 임시수용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자녀 캠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팀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목회자와 청년,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목회자와 청년들의 귀한 섬김이 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당회 안내

일시: 2022년 6월 4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법이 의학을 위협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의학에 미치는 영향



이명진 원장
(영이비인후과원장)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SOGI,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서구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후 모든 영역에서 이 법에 따른 법 개정과 규칙을 만들어 문화 해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인간의 사고와 윤리기준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전체주의 법이다. 교육과 고용, 종교,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가 시작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젠더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의학 분야에 끼칠 부작용을 짚어보기 전에 의학 분야에서 젠더(Gender)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젠더개념은 의학적(해부학적, 생리적,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 된 개념이다. 의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성(性)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다. 의학은 자연법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인간은 세포마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각각 다 가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성기 수술을 하고 이

성의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는다.

의료윤리의 기초가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현재 제네바 선언)를 통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정치가 의학을 위협하면 의료윤리가 무너진다. 윤리가 무너진 의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죽음과 피해를 가져온다. 나치의 인체 실험과 일본의 731 마루타 실험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다.

젠더이데올로기같은 주관적인 판단을 법으로 만들어 의학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법과 의학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와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가역적인 부작용과 피해가 예상된다.

진료현장에서 특정 약물은 성별에 따라 약물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약물은 남자와 여자에게 처방용량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은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은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한다. 여성에게 남자의 용량인 10mg을 처방하게 되면 졸음으로 인해 운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몽유병 같은 이상행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가령 진료하는 의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약물처방을 할 때 혼선을 빚게 된다. 남자에게 쓸

용량을 여자에게, 여자에게 쓸 용량을 남자에게 처방하게 되어 약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젠더 개념이 허용된다.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환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주게 되어 여자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외국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교도소 사건과 같이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병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뇌의 전두엽은 분별력과 판단력,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이다. 이 부위는 만 18세~24세에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다.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시행되는 위험한 젠더교육은 아이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무분별한 트랜스젠더 수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청소년들이 4000%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의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결정권이고,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Informed Consent)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 성관계의 위험성과 보건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수술은 비가역적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술 전 숙려기간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동성 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제공을 위축시켜서 에이즈와 매독 등의 성병 증가가 예상된다. 일명 에이즈약이 개발되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매독과 성병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HIV감염인 9,393명 중 48.3%가 매독에 중독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조치에 의해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보제공이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의사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학의 영역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의료에 종사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의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큰 제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발생하고 의사들은 전문직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깨어있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황된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의사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 이 글은 2020년 8월 21일자 <의학신문>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위한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으로 얼룩진 교육으로 인해 참혹하게 희생된 순전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상과 이념 대립의 장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교육감 후보들에게 자신만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위선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께서 그러한 후보들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후보들이 진정으로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후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되고,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욕심으로 다툼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쌓여있는 억울함이 있다면 주께서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해관계와 사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다음세대만을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욕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선거처럼 복수의 중도보수 후보들이 끝까지 이진투구하지 않고, 단일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감 후보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감의 자리에 연연하여 거짓의 맹세를 하고,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정치 단체와 연대하고 손잡는 후보가 있다면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질서에 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명확히 반대하고, 그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후보의 지지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성교육과 급진적 페미니즘 교육을 반대하는 후보로 단일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념 교육을 반대하며, 확실한 신앙과 교육관을 소유한 후보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가 교육감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민들에게 깨어있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으며 성숙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꼭! 투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서울시 교육감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화합하고 연합하며, 밀알처럼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교육을 재건하는 주역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세계관운동을 이끌어가는
온누리세계관학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자 가장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전도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고, 교회가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8절).

참된 믿음은 전파되고 전염됩니다. 당시는 오늘날 같은 매체가 없는 시대였기에 믿음의 소문이 진짜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부흥 그 자체가 홍보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규모가 작든 크든 부흥이 일어나면 소식이 퍼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절로 알려져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로마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소문을 들으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교회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 전에 위대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을 들었던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기도의 습관이 묻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엡 1:15~16).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빌 1:3~4).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살전 1:2).

바울의 기도제목 중심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나 1

장에 그가 그 교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가 요약되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기도가 나머지 서신서에 영향을 줍니다. 그는 놀랍게도 앞서 나온 기도를 풀어서 서신서에 썼습니다. 특히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서술하고, 뒤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해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들을 서신서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타문화권 선교사로 쓰임 받았던 이면에는 그의 위대한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인 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9~10절).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와 사역 중심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섬겼습니다.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소명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김’이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과 내용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와 같았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다.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이 들어있어서, 뼈에 사무치는 것이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삶을 움직이는 것이 소명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체험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환경은 열려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과연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을 얻으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11~12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데 은사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확신, 섬김, 전도, 말씀을 가르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견고히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는 반드시 신령한 은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지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 명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사를 나눠준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오해할 수 있게 번역되어 있는데, “너희와 함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한다”가 정확합니다. ‘내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두 구절이 서로를 보완하는 병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다’는 것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희에게 가서 나눠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눠 주시는 은사를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때로는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만남으로써 은사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데 필수는 은사입니다.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홀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함께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추구하기 원했기 때문에

둘째, 그들 가운데 열매를 추구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거두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13절).

괄호 부분은 제가 삽입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들이 모두 ‘열매를 맺기 위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거두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우리는 씨를 주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고,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은사가 나눠짐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열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맥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 인격적인 성숙,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참된 은사가 온전히 발휘되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올바른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13면에 계속〉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방법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

자녀들에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라는 말을 듣는 아버지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남자일 것이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존경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고, 원하는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원하는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버지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나아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것이다. 돈을 풍족하게 주고, 자동차와 집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체계를 물려받는 것이다. 자녀들이 인생의 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표가 되는 가치관, 원칙, 성품 등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된다. 자녀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심어준 가치관과 삶의 태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한다. 또 잘못했을 때도 자녀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은 나무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버무리면 안 된다.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이들은 완벽한 아버지보다 때로는 실수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더 존경한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자녀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한다면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 아버지는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내는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고,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세워줄 수 있게 된다. 그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남자로서 최고의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남자로서 태어나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다. 자신이 바라고 꿈꾸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존경의 사슬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어서 자녀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5월 23일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8~33절'



1.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 하십시오”(고전 10:31)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기쁨과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해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0:33).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한 줄 소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꽃 같이 살고 싶어요!”

/ 강하운 어린이(5세)

“하나님께서 주신 토마토 나무 잘 키워서 따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햄스터가 너무 귀여워요.”

/ 서지민 어린이(5세)

“만들기 대장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이랑 자연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다인 어린이(5세)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딸기 감사합니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여 자연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꽃들이 행복하게 춤추는 것 같아요.”

/ 임채린 어린이(5세)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놀았어요.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하울 어린이(5세)

“하나님이 주신 제철 과일이 정말 맛있어요. 귀한 선물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 김규찬 어린이(6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 김지유 어린이(6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자란 식물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 박세민 어린이(6세)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 박주희 어린이(6세)

“과룩과룩 올라오는 잎들을 보며 봄을 느꼈어요.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설지환 어린이(6세)

“꽃처럼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게요.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 전예림 어린이(6세)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정은우 어린이(6세)

“예쁜 꽃을 보며 정말 기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 강하운 어린이(7세)

“하나님, 꽃과 자연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 박은유 어린이(7세)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노니 즐거웠어요.”

/ 설지환 어린이(7세)

“하나님 따뜻한 봄과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은아 어린이(7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좋아요!”

/ 김시울 어린이(7세)



22. 작아도 괜찮아



【크리스천이 세상에 보여야 할 자화상】

평범함의 위대함!

환경 지킴이 ‘박희운 집사’

평범하게 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꾸준히,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다. 여기, 평범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성도가 있다. 그 주인공은 대전온누리교회 ‘박희운 집사’다. 지난 5월 22일 “특출난 게 없어서 도무지 인터뷰할 게 없다”는 박희운 집사를 만났다.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변을 걸으면서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방에 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의 신앙과 삶 이야기를 들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박희운 집사는 주일이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가끔은 걸어서 교회에 오기도 한다. 작은 실천이 무너진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도도 한다.

“사실 승용차를 타고 교회 가는 게 더 쉽습니다. 주차하려면 여간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가려면 집에서 조금 일찍 나오는 수고는 감수해야지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잖아요? 저는 택시를 타면 잔돈을 안 받거나 요금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요즘 밥값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데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면 기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것도 알릴 수도 있고요. 주보나 온누리신문을 전해줘도 좋습니다.”

집에서는 안 쓰는 전기 코드 뽑는 것이 기본이다.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챙기고,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 식당에서 식사한 뒤에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희운 집사에게는 화장실에서 물 아끼기, 종고거래, 텀블러 이용, 골프채로 호도 지팡이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기 등 평범하지만 위대한 습관이 20가지쯤 더 있다. 평범한 위대함이 모여 자칭타칭 ‘환경 지킴이’ 박희운 집사를 만들었다.

평범한 공무원, 자나 깨나 환경을 생각하다!

박희운 집사는 신앙생활도 평범하게 시작했다. 박희운 집사는 결혼하면서 아내 유금은 권사의 권면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꼭 감고 교회에 다녔더니 믿음이 생겼다.

“우리 유 권사가 결혼하려거든 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마음이 몹시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말씀이 참 달고, 성도들과 교제가 정말 좋더라고요. 별 탈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전온누리교회는 2007년부터 출석했습니다.”

박희운 집사는 직장생활도 평범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행정공무원으로 41년을 근무하다 몇 년 전 정년퇴직 했다. 박희운 집사

“온누리 성도 여러분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종고장터 애용하기,
일터와 일상에서 소금과 빛되기를
제안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박희운 집사(대전온누리교회).

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늘 기분을 지키는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늘 시민들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할까 고민하는 자세’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과 자세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을 주시더라고요.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에게 수여하는 상 ‘청백리상’을 받고 특별승진도 했습니다.”

박희운 집사가 자나 깨나 환경을 생각하게 된 것도 공무원 시절 환경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다. 박희운 집사는 대전시청 환경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시에 ‘쓰레기 제로화 도시’를 제안했다. 몇 달 동안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다니고,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깨달았다.

“재활용이 허울만 좋지 실천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쓰레기가 아닌 것까지 쓰레기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분명 더 쓸 수 있는 멀쩡한 물건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양이 업체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줄어들면 관련 업체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으니까 민감하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의식도 부족해서 쓰레기 제로화 도시를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가지씩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운 집사의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풀

어 놓자면 끝이 없다.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 20가지가 훌쩍 넘는다.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의 방향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다. 누가 보면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보이지 않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박희운 집사가 쓰레기 제로화 도시를 추진할 때는 그토록 어려웠던 일들이 박희운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이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는 일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 국내외 여러 도시와 지자체에서 쓰레기 제로화 도시를 표방하며 노력하고 있다.

박희운 집사의 제안 대중교통, 종고장터, 소금과 빛!

박희운 집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동참하면서 환경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환경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실천을 나누는 경험이 그렇게 즐거웠다고 한다. 박희운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실천이 29가지나 된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안 세 가지만 소개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종고장터를 애용하고’, ‘일터와 일상에서 소금과 빛 되기’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환경도 아끼고, 교회 주변 이웃들도 배려하고, 노약자와 차세대 가정에 교회 주차장을 양보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고장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박희운 집사가 제안한 환경을 지키는 작지만 좋은 습관 중 하나다.

“안 쓰는 물건을 사고파는 문화가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문화가 교회에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는 종고물품을 기증받아 팔아 선교하는 ‘나눔장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 나눔장터 같은 종고상점이 자생(自生)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희운 집사가 가장 마음을 많이 담은 제안은 일터와 일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한번은 골목에 계속 쓰레기가 쌓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CCTV도 있고 경고 안내문도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와 처벌이 있어도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화단을 예쁘게 만들었더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그 골목 화단처럼 일터와 일상에서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아끼는 소금과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인들과 함께하셨다!

사회선교 최전방이자 사회를 밝히는 '새사람사역'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인생은 짬뽕 면이나 반반치킨처럼 반반 선택지가 없다.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면에서는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와 사역팀을 소개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셨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켰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응당 예수님처럼 죄인과 함께해야 한다.

여기, 죄인들에게 가족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사역이 있다. 사회선교부 '새사람사역'이다. 새사람사역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돕는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소자들의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한다. 12개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등 포함)에 큐티지 <생명의삶>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제자양

육, 큐티,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동기 목사(새사람사역 대외협력팀장, BEE Korea)는 10년 넘게 재소자들을 만나고 있다.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역할이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중간자 역할을 깨닫습니다. 재소자들이 일대일제자양육과 멘토링 등을 받으면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새사람사역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형제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지난 2년 동안 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소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져서 일대일제자양육과 멘토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들어가서 인문학, 심리학,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재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마저도 지난 2월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법무부에서 7월부터 교도소 출입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기牧사는 오랜 기간 재소자들을 만나면

서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간혹 선입견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재소자들을 대하는 봉사자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깝다.

“재소자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소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업 총수나 역대 대통령들, 사도 바울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교인이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정동기 목사가 새사람사역의 의미를 거듭 설명하면서 동역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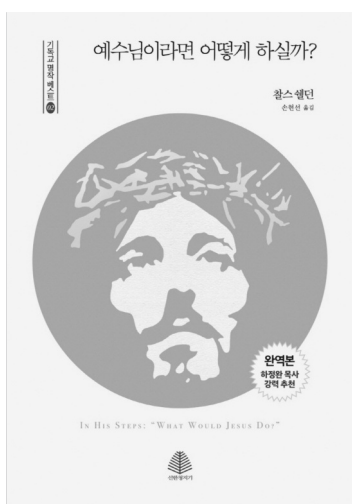
“저는 새사람사역이야말로 사회선교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소자들은 심적,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최전선입니다. 사회를 밝히는 공간입니다. 재소자들이 변하면 사회도 밝아질 것입니다. 함께 동역해주십시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평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M. 쉘던 저 | 선한 청지기 | 15,000원

대학 초년생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추구하던 차에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께 묻고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대로 실천한다!”

이 세 문장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나에게 인생의 나침반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비전과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복 중의 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말씀 중심의 영성을 갖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가치관이 매우 혼란스럽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한 양상을 띠고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윤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는 ‘절대 진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신념이 하나의 종교가 될 정도다. 이것이 사회 곳곳에서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싸이기가 매우 쉽다.

세상은 결코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바로 그 능력을 키워주는 첫 단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 시험과 유혹, 원하던 원하지 않은 직면하게 되는 고난 등 모든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묻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한다. 결과를 고민하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만약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과를 먼저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한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창조신앙을 법적으로 부인하려는 무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반성경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세몰이하는 단체들이 왕성하게 운동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차별하는 종교라고 호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정치권에 있는 크리스천 의원들이 신앙의 양심에 합당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를 묻고 듣고 행할 때이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못한다. 그들이 속한 분야에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만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이 책은 위축되기 쉬운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준다. 다양한 직업과 상황에서 승리했던 지체들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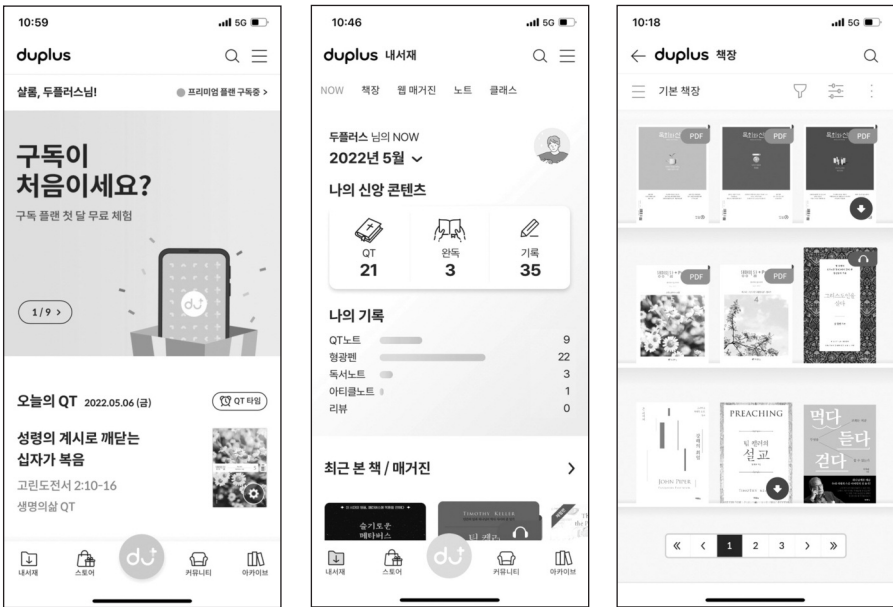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란노서원, 기독교 독서 플랫폼 **du+ duplus** 출시

두란노서원에서 국내 최초 기독교 독서 플랫폼 ‘두플러스’ (이하 두플러스)를 출시했다. 두플러스는 두란노서원의 ‘두’와 더하기(+)라는 뜻의 ‘플러스’를 합친 단어다. 웹사이트와 앱에서 전자책, 매거진, 오디오북, 온라인 클래스 등을 월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다. 두플러스를 적극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을 선물하고 싶다는 두란노서원의 포부가 참 멋지고 당차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독교 독서 플랫폼 ‘두플러스’ 사용 화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행 19:9-10).

두란노서원의 핵심 가치가 담긴 성경 말씀이다. 두란노서원은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42년을 씀 없이 달려왔다. 이제 그 일을 온라인에서도 하고자 지난 5월 17일 국내 최초 기독교 독서 플랫폼 ‘

두플러스’를 출시했다.

신앙 중심의 독서 플랫폼

두플러스 서비스는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다양한 도서(전자책), 오디오북, 매거진 등을 월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서 콘텐츠들을 횡수, 시간, 개수 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온라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독서 플랫폼과 두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독교 독서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두플러스와 비슷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여러 독서 플랫폼이 있지만, 신앙 서적이 중심이 된 플랫폼은 없다. 신앙 서적이 구비되어 있어도 다양하지 않고, 찾기가 어렵다. 두플러스는 순수 복음 콘텐츠만 모아두었다. 생명의 삶, 목회 전문 잡지, 바이블칼리지 영상, 우리말 성경 등 두란노서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신앙 자료들을 두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앙 서적을 주로 읽고, 복음 콘텐츠를 모아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두플러스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두플러스에서는 두란노서원에서 제작한 전자책 약 550여 종을 모두 제공한다. 책의 텍스트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디오북은 현재 40여 종에 다다른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플러스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우선 이용자가 이용하는 QT를 비롯한 모든 콘텐츠 활동 기록을 ‘내 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홈 화면에 있는 ‘나의 QT 지수’는 한 달 동안 QT한 기록을 퍼센티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QT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QT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크리스천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 두플러스는 신앙 콘텐츠를 혼자 읽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QT 내용, 신앙 서적과 영상 리뷰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두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클럽을 가입하면 다른 성도들과 기도, 감사일기, 신앙 서적 읽기 등 다양한 도전을 함께 할 수도 있다.

두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이라는 두

플러스의 타이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두플러스와 함께라면 복음이 담긴 신앙 서적을 매일 읽으면서 날마다 풍성해지는 새로운 신앙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두플러스의 네 가지 ‘구독 플랜’

두플러스의 이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구독 플랜’을 이용하면 된다. 두플러스는 ‘도서 플랜’, ‘QT 플랜’, ‘스마트 플랜’, ‘프리미엄 플랜’ 등 네 가지 구독 플랜을 제공한다.

‘도서 플랜’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도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성도들에게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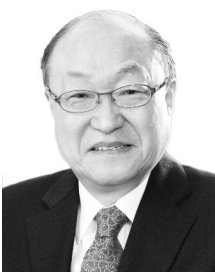
‘QT 플랜’은 모든 연령의 QT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세대 QT지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부터 청장년층이 사용하는 <생명의 삶>까지 월 9,900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세대별 영어 QT 자료도 제공한다. 자녀와 함께 QT하는 가정에서 활용하면 유용하다.

도서 플랜과 QT 플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스마트 플랜’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 플랜은 월 1만5천 원이다. 여기에 <생명의 삶 PLUS>, <목회와 신학>, <그 말씀> 등 목회 자료까지 활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신학생, 리더들은 ‘프리미엄 플랜’을 이용하면 좋다. 프리미엄 플랜은 월 2만 원이다. 두플러스 구독 플랜을 신청하는 이용자들에게 첫 달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단체 구독 플랜’도 있다. 순예배, 교회, 선교단체, NGO기관, 신학대학, 신우회, 크리스천 커뮤니티 등 공동체에서 QT나 신앙 서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다. 단체 구독 플랜은 연 단위로 결제하고, 지정 회원에게 플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체 구독하면 론칭 기념 할인을 해준다.

문의: duplus@duranno.com

사역칼럼



박태성 장로
(두란노서원
경영이사)

두란노서원 유튜브 채널, 바이블칼리지 온라인 강의 등 여러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

졌다. 디지털 신앙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더욱 증가했다. 그 변화에 발맞춰 두란노서원에서 만든 여러 디지털 콘텐츠를 보완하고 합해서 두플러스를 개발했다.

두플러스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두플러스라는 이름 또한 공간의 제한을 넘어 어디서나 복음을 접할 때 그 열매가 더욱 맺힌다는 의미의 ‘플러스’와 그 열매가 맺히는 곳을 두란노서원이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두란노서원의 ‘두’를 따서 만들었다. 두플러스는 두란노서원 제작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역할만 수행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보고, 듣고, 기록하고, 나

누며 경험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콘텐츠가 담은 복음이 확장하도록 기획되었다.

두플러스가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며 성장하듯이, 성도들이 두플러스 안에서 마음껏 복음 콘텐츠를 즐기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바란다. 더욱 다양한 신앙의 놀이기구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두플러스의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변화할 예정이다. 여러 크리스천 콘텐츠 제작 기업들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두란노서원의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출판사, 작가, 기업들의 풍성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을 꿈꾼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목마르던 해외 거주 선교사와 이민자들에게도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우물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정기구독권 후원은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흐르기를 소망한다.

디지털 스트리밍과 구독 경제에 익숙한 시대다. 세상에 흘러넘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서 구별되는 복음 콘텐츠를 전하는 일에 두란노서원의 두플러스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공동체(순)에 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나서 쫓아다니기 싫어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과 척을 질 수도 없고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언하고 싶다. 교회는 온전하고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만드시 공동체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다.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있지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 있고 조건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롬 5:8).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다.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할 힘이 생긴다. 내가 어려워하는 그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딸임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단계로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라. 성경을 보면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일을 당했던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노예로 팔려간 일이 요셉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정이 요셉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했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한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의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서 12장 후반부를 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다 못해 원수처럼 여겨게 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나온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롬 12:19)라고 했다. “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쏜불을 쌓을 것이다”(롬 12:20)라고 권면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말해 준다.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 본부장)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탈진(Burn out) 회복을 위한 제안

살면서 ‘탈진’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탈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바닥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에 좌절하고 낙망하는 모습을 간혹 본다. 우리의 결혼생활에도 예외 없이 탈진이 찾아온다.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일을 처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선 자신을 만나기도 한다. 탈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종종 찾아온다. 육체적인 한계, 정서적 한계, 영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느낌, 바닥난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 보통은 잘 쉬고, 잘 먹으면 곧 회복되는데 장시간, 지속적으로 소실되는 자극을 받으면 활력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결혼생활 중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탈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 오랜 시간 계속되는 가족 간병,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족의 채무 문제 등이 탈진을 불러올 수 있다. 골수가 빠져나가는 힘들 혹은 자신이 소실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체험하게 한다.

탈진이 되면 무기력, 피곤, 우울을 경험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힘과 열정으로 했던 일과 업무에 더이상 열정과 힘이 생기지 않는다. 일과 업무에서 주도성을 발휘했었다면 탈진된 상황에서는 일과 업무가 자신을 이끌어간다. 일과 업무에 파묻혀서 자신이 소멸된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결혼생활에서도 탈진의 경험이 충분하다.

탈진 상태에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과 피곤함을 경험한다.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바닥난 듯한 신체, 심리적인 무거움 등이 나타난다.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면 자신을 돌볼 시간이 극히 부족해진다. 늘 ‘비상 대기조’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이는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은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위치와 역할이 된다. 배우자나 부모님 중에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 해결되지 않는 가족 관계에서 해결자나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다면, 어느 날 문득 “지친다”, “몸이 지친다”, “끝이 없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 섞인 독백을 하기도 한다.

탈진은 무기력과 피곤과 우울의 형태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탈진은 때로 갑작스러운 분노, 통제되지 않는 짜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했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짜증과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에게 천사 같았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한다. 배우자의 짜증과 분노가 일반적인 훈육적인 차원을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표출되었다면, 배우자의 탈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우자의 탈진과 그 탈진으로 인해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난 때 맞받아쳐서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짜증과 분노 뒤에 내재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여

유를 가져야 한다.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과 민감함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심리적인 상태의 사인이나 징후를 알아챌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배우자의 탈진 징후를 발견했다면 회복을 제안해야 한다. 만일 육아 과정에서 아이들을 향한 짜증과 분노의 표출이 배우자의 탈진에서 기인했다면 충전 기회를 제안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 1박 2일 정도 혼자만의 여행, 기억나는 맛집에서 식사하기, 친구들과 만남과 충분한 대화 등 탈진된 배우자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가장 좋아하는 일, 에너지를 얻는 일, 마음이 환기되는 활동 등이 있다. 과중하고 끝없이 요구되는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런 활동들과 단절되기 쉽다. 가장 충전되는 시간이 무엇인지 나눌 필요가 있다. 어떤 멋진 남편은 육아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1박 2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있도록 바다가 보이는 호텔을 예약해 주면서 지친 영육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남편은 탈진된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서 혼자만의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육아로 힘들어하는 심리적 탈진 사인을 보고 회복의 시간을 제안했다. 물론 배우자의 배

려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과도한 책임감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육아나 가사, 자신이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에서 잠시 손을 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배우자의 배려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탈진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회복과 쉼을 제안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쉴 기회, 충전할 기회가 주어져도 수용하지 못하고 거절한다. 하지만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결혼생활에서 꼭 필요하다. 어린 자녀들을 남편에게 두고 잠시 집을 떠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다. 탈진의 경고등이 이미 켜였다면, 육아나 가사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잠시 내려놔도 된다고 자신을 다

독여 보자(왕상 19:1~8).

나눔: 최근 당신을 지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자와 나눠 보십시오.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나눠 보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올해는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 120주기

그의 소원대로 복음이 꽃 피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내 엘라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을 밟았다.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 이후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의 정세가 불안하다는 안내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시간을 보내다 같은 해 6월 20일 조선 땅을 밟았다. 그때부터 그들이 힘을 모아 본격적인 조선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이 당시 조선은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사, 교육자, 번역가였다. 누구보다 우리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한 선교사였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덕수궁 인근 정동에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크리스천 사역자 양성을 위해 병원을 개조해서 학당도 세웠다. 이 학당이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았다.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한글로 된 성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기 전부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 이수정이 한글번역본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등을 출간했다.



아펜젤러 선교사 일가.

1887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스크랜튼, 헤론 선교사가 ‘성서번역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1892년까지 기존의 한글 성경을 보완한 <누가복음전>, <보라달로마인서>와 마태복음을 번역한 <마태복음전>을 출간했다.

아펜젤러와 동료 선교사들의 성경번역 사역은 한국의 인쇄 출판문화를 부흥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9년 인쇄기를 설치하고 배재학당에 ‘삼

문출판사’를 세웠다. 성경과 각종 선교잡지를 발행하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이듬해인 1890년에는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성교서회’를 세웠다. 조선성교서회는 당시 국내 출판문화를 이끌어 갔다.

아펜젤러와 동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1900년 즈음에는 신앙성경 대부분이 한글번역이 이루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성경번역을 위해 애쓰던 중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902년 6월 11일 성서번역위원회 참

석을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고를 당했다. 짙은 해무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있던 ‘구마가와 마루호’와 ‘기소가와마루호’가 충돌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끝내 완역된 신약성경을 보지 못하고 승객 22명과 함께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미국인 보울비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학생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소천한 지 120년이 흘렀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담 다니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경남, 경북 등 전국 각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대한민국 수많은 크리스천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의 소원대로 조선에 복음이 꽃 피었다. 아펜젤러 선교사 소천 120주년을 맞아 그의 가묘(假墓)가 세워진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역, 군산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 등지를 방문해서 참된 신앙과 아름다운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주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전라북도 군산시 내초안길 1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 신간

크리스천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임은미 저 | 두란노 | 10,000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정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에 잘 사용하도록 지혜를 간구합니다.”

책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에 수록된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 안에 크리스천들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를 고민해야 한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만 하면 된다.

월급날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십일조를 챙기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다. 십일조를 챙기다 보면 문득 ‘이 돈이면 이번 달 생활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쓸 수 있을 텐데’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후원금이 아까워지는 날도 있다. 재정 역시 하나님이 주신 줄 잘 알지만, 돈에서 자유하기가 참 힘들다.

월급날마다 현금을 두고 고민하거나 재정문제로 힘들어하고, 재정 훈련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케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임은미 목사의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다. 저자는 선교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채우심 이야기를 이 책에 진솔하게 담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재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제게 허락하신 재정들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사용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재정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들어온 재정을

배우자 기도부터 결혼 준비까지



<연애상담>
웹시바 저 | 두란노 | 13,000원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나는 배우자 기도를 ‘미혼의 청년들이 결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는 간구’라고 정의내린다.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래 결혼의 결정권을 드리겠다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배우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미래의 배우자를 이미 사랑하는 순간들이다.”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웹시바’의 저서 <연애상담>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면 좋겠다. 저자 웹시바는 유튜브 채널 <심리학 하는 교회언니 웹시바>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돕고 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연애의 핵심은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다.

<연애상담>에서는 청년들의 연애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답을 들을 수 있다. 연애 중인 청년,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은 청년, 청년 목회자나 리더십들에게 좋은 책이다.

<연애상담>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의 출발선’, 사랑의 기본 개념 ‘바운더리 심리학’, 연애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건강한 사랑 연습’,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별과 고독의 시간’, 이 결혼 해도 될까요, ‘건강한 결혼관’을 주제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웹시바 작가는 배우자 기도는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한 발걸음!

5월 24~26일 대전온누리교회 '말씀사경회'

대전온누리교회가 지난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한 말씀사경회 '선교: Visioneering'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 대전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했다. 성도 160명이 참석했다.

말씀사경회 '선교: Visioneering'에서는 도육한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가 24일(화) '그 사랑의 시작' (창 1:1~5), 25일(수) '그 사랑의 성취' (요 3:5~17), 26일(목) '그 사랑의 완성' (행 1:4~11)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도육한 목사는 말씀사경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성도 각 개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빛으셨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상은 집사(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다시 꿈꾸는 시간이



대전온누리교회가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해 진행한 말씀사경회 '선교: Visioneering'.

었다"면서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숙경 집사(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섬길 것"을 약속했다.

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7~8월 국내외 아웃리치,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의 선교 강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 38명 결선

25명 세레받고, 나머지 13명 세레 교육

고은별 성도(수원온누리교회)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번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에서 불교신자인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다. 그 마음이 통했다. 부모님이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세레 반기로 결정했다. 60세 이상 부모들을 위한 행복드림콘서트 전도대상자 25명이 세레를 받았다. 5월 28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3부 토요주일에배에서 세

레식이 열렸다. 이번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결선한 세레 신청자는 모두 38명이다. 25명이 먼저 세레를 받았고, 나머지 13명은 세레 교육을 수료한 다음 소속 캠퍼스와 공동체에서 세레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28일) 오후 4시 동빙고 근린공원에서는 행복드림콘서트 후속 프로그램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풍'이 있었다. 문의: 02-3215-3214

생명나눔의 기적 마지막 일주일!

6월 5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 마지막 일주를 남겨두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대한민국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14개 교회와 22개 단체에서 성도 7,911명이 헌혈했

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는 8천여만 원 모금했다. 온누리교회 성도 854명이 동참했다(5월 25일 기준).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KGMLF '선교와 돈' 출판감사예배&세미나

선교단체 및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100여 명 참석

지난 5월 23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KGMLF '선교와 돈' 출판감사예배&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KGMLF '선교와 돈' 출판감사예배&세미나에는 국내 선교단체 리더십들과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조나단 봉크 박사 '한국교회와 선교를 향한 선교와 돈에 관한 성찰 및 미래 청사진이란?', 넬슨 제닝스 박사 '한국교회와 선교에 있어 온전함, 존속

가능성, 그리고 책무성을 묻는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종이 되자"고 권면했다.

2021 KGMLF '선교와 돈'에서의 강의와 발표 내용을 엮은 책 <선교와 돈>을 두란노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파워임팩트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이하 파워임팩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 6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소년반 6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반 3만 원, 부모반 3만 원이다.

문의: 010-4548-1522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교단연합협의회장 방문

지난 5월 22일(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교단연합협의회장 헤하르도 목사가 서빙고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주일 3부예배와 S브릿지예배에 참석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인사했다. 헤하르도 목사는 온두라스 교단연합협의회를 대표해서 체장암으로 투병 중인 이동규 장로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피 15만 원(목회자 50% 할인). 문의: 02-2182-9114

온누리 아마추어 합창단 다 모여라!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 참가자 6월 30일까지 모집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 참가자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소속 합창단(찬양사역팀 제외)이거나 온누리교회 성도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합창단 이름, 합창단 소개, 지휘자 및 단장 연락처 등을 적어서 문의처(010-6270-2327)로 보내면 된다. 제1회 온누리 합창 축제는 오는 12월 3일(토)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6270-2327

제8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

6월 6일 양재 화평홀과 온유홀

이천선교스포츠포츠선교팀에서 '제8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6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과 온유홀에서 열린다.

온누리열방탁구축제는 아프리카 선교 후원 및 지역주민전도를 위해 기획됐다. 양영자 선교사(전 국가대표 탁구선수), 강희찬 감독, 대한항

공 선수들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온누리열방탁구축제에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교역자, 선교사, 이주민,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5월 29일(주일)까지 고길범 팀장(010-3772-3686)에게 공동체, 부수(탁구 등급), 이름 등을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식비 포함). 문의: 010-8761-4178

<온누리신문> 말씀 해설과 중보기도 제목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성도들의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돕는 새로운 지면 '말씀과 기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말씀과 기도'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중보기도하는 지면이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의 쉬운 해설,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들을 지면에 소개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장(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설을 듣고 싶은 말씀과 중보기도 제목 요청은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말씀 해설과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 hha0@onnuri.org

9월 세레자

■서빙고	박우덕 211229	표광민 박재민	조호현 이주미
모임심 790920	박윤성 김주희		최사랑 200411
조성희 730615	양운유 200303	■양재	최현형 이하나
현민교 800523	양문호 천효진	유아	최하늘 220127
황상철 730810	양희망 210316	김로윤 211203	최현형 이하나
황지민 020820	양문호 천효진	김민수 주형윤	한이준 210107
입교	이민율 200331	김 온 200428	한영동 김정연
김예빈 040217	이상백 김지현	김윤진 전수지	
유아	이서율 211016	박도준 210630	■대학청년부
강시는 210501	이상백 김지현	박선민 이지혜	여호수아
강신구 우선하	이서현 210101	박서아 210417	이현지 910204
김노아 210120	이승환 김진경	박세종 김 념	입교
김성민 김성신	이성준 210917	박서윤 210107	박여운 950122
김리아 210302	이우영 유정원	박의민 임효빈	유아
김성묵 김희수	이소담 191203	박찬별 190702	차주원 210924
김시울 200612	이기원 박은지	박관수 양미화	차현우 김수경
김택진 곽현진	이하율 200729	백은유 200831	
김유하 200605	이동현 이지영	백재현 박은지	허브
김정빈 이해원	이한나 201012	용하준 210730	이정진 000915
민한나 210616	이준호비율다제들린	용장순 박선우	
민정섭 양주아	전시안 210428	윤이안 190828	J4U
박리아 200522	전강범 김상희	윤 담 김지민	오수민 951124
박준혁 유사론	최시안 191020	임하은 210611	유아
박서진 211026	최효광 엄지숙	임현수 류나경	박 솔 211012
박찬주 김지희	표조이 210129	조혜연 210106	박영민 권슬기

세례 간증



/ 황상철 성도(마포공동체)

주의 말씀으로 사는 어린 양!

나는 교회 유치원을 나왔다는 것 외에는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 오히려 피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몇 가지 조건 중 하나가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이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돌고 다니기도 했다.

나는 초등학교 동창인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의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위해 예배를 나가겠다고 차를 태워만 달라고 부탁했다. 그 부탁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고 20년이 지났다.

예배당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는 잠을 자기도 하고, 만화책을 읽기도 했다. 나름 주일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15년 넘게 지냈다. 그 와중에도 ‘하용조 목사님 설교 목소리가 참으로 힘이 있구나’, ‘주님의 진정한 말씀은 내가 알고 있던 교회의 본모습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들이 쌓였다. 아내 몰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보기도 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검색해보는 시기가 있었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직장 문제, 삶의 문제가 아주 강하게 다가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길과 앞으로 갈 길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시기가 있었다. 몹시 힘들었던 그 시기 아내가 진지하게 교회에 나가 주께 의지하자고 권유했다. 부지불식간에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삶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시기에 한 일대일제자양육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었다. 마치 다시 생명을 얻는 것만 같았다. 그때 배운 큐티는 돌덩이 같이 굳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치유되게 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온누리교회와 순예배는 나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고백한다. 나를 살리신 주님!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죄인의 고백과 회개를 올려드린다. 너무 멀리 돌아온 죄인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심에 감사기도를 올려드린다. 남은 삶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어린 양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OBC 마가복음 수료 간증



/ 홍소피아 자매(S브릿지공동체)

기쁨으로 순종!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버겁고 숨이 차고, 식은땀으로 한자복이 다 젖어도 끝까지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단 한 번의 결석도 하지 않았다. 모두 은혜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여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완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실로 돌보셨듯이 연약한 나를 진실로 돌보시고, 내 필요를 신기할 정도로 채워주셨다. 지금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덕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선택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권면하셨다. 담당 인턴 선생님이신 김요한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옆 환자분은 엄마처럼 살뜰히 도움을 주셨다. 매 순간 신기할 정도로 기적 같은 날들을 보내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까지 감내하시며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라는 강의를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함께 계시다”를 고백하고 또 고백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터질 만큼 커질수록 그동안 교만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뿐인 것 같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다.

유아세례 간증



/ 부: 전강범, 모: 김상희, 자: 전시안

부부에서 가족으로!

결혼하고 처음 몇 해 동안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내가 원하고 준비되면 그때 아이를 갖고 노력하면 된다’는 얇은 생각을 했었다. 교만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 발을 빼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졌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서먹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냈다. 당시 나의 모든 관심사는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이었다.

주님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 교만하고 방황하던 나를 온누리교회 예배로 인도하셔서 내 안에 있던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일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무너진 기준들과 삶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시고, 채워주셨다. ‘아기가 생기면 갖고 아니면 말지 뭐’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정직하게 변했다.

가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여러 이유로 미루었던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좋지 않은 진단을 받고 ‘임신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다. 주님은 시험관을 시작할 때 형님을 통해 내게 시편 113편 9절 말씀을 주셔서 희망을 품게 하셨다. 낙망하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

지 않게 하셨다. 시험관 시술을 하는 과정은 정말 길고 고됐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맞아야 하는 호르몬 주사와 시술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지치게 했다. 가족들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로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아기의 이름을 꼭 받고 싶었다. 어찌 보면 막무가내이고, 너무 막연한 기도제목이었는데, 주님은 나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다. 어느 날 故 하용조 목사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주님의 위로’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시안’이라고 지으세요.”

그때 진행된 시험관 시술에서 비로소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시안’이라는 예쁜 딸을 지난해 4월 출산했다. 시므온과 만나처럼 시안이 앞으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것이다. 올해 우리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한다. 부부라는 이름에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파워임팩트 수료 소감



/ 안수연 성도(인천온누리교회)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아이에게 사춘기 예방주사를 놓아주려는 마음에서 파워임팩트에 지원했다. 우리 아이에게 사춘기가 없을 것 같아서 맞보기를 조금해보라는 의미였다. 사춘기 대비 작업을 충분히 하고 존중받으며 자란 우리 아이의 사춘기는 가벼울 거라는 기대는 착각이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뾰족한 가시로 덮인 고슴도치로 변하고, 자기만의 갑옷에 스스로 가두는 것 같았다. 단힌 아이의 방 문 앞에서 우리 부부는 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예전처럼 기쁨을 나누고 친밀감을 느끼기 원했는데 매번 가시 돋친 거절을 받아야 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무기력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 우리 부부를 잡아준 것은 말씀과 기도, 파워임팩트 공동체 동역자들이었다.

파워임팩트의 성격은 기도와 같다고 생각한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끈질기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 드러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을 때 세상과 사람들이 천천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파워임팩트도 마찬가지로

지다. 처음 파워임팩트에 참여했을 때는 부족한 부모인 것을 깨닫게 하는 노크였고, 그 이후 스테프로 섬기며 이어진 섬김은 매일의 기도 같았다.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분노하고 실망할 때 파워임팩트라는 둥지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셨다.

지금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기도하는 부모는 아이라는 나침반 위에서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와 같다고 생각한다. 사춘기 아이들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새벽을 밝히는 기도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는 하나님의 자성을 찾고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을 때,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장로칼럼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남주연 장로
(서초C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며, 지치고 아픈 선교사님들에게 새롭게 건축된 선교사 숙소 ‘조이하우스’가 “지치고 상한 엘리아가 여호와를 만나서 회복된 로렘나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왕상19:1~18)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공동체 선교사역자를 담당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10여 년 동안 공동체에서 선교사역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이 있었다. 양재온누리교회 2000선교에서 ‘선교사 케어부’를 섬기면서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지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게 하셨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헌신해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도들과의 동역이다. 노트북이 고장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선교사님을 위해 공동체에서 노트북과 사역비를 후원한 일, 아웃리치 가서 벽화를 완성하고 선교사님들과 밤이 새도록 은혜를 나누는 일 등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요즘에는 안식년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있다. 안식년으로 귀국했는데 지낼 숙소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웠다. 치과의사로 40년 동안 살면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건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한 일도 많았다. 눈물을 옥구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린다. 그 은혜와 감사에 힘입어 선교사 숙소부지를 구입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 드렸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고전 3:5).

지난 5월 25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 숙소 조이하우스 완공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씨앗 같은 숙소 건축을 결정하고 준공하게 하신 하나님과 이재훈 담임목사님, 이천선교본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 2:17).

H2H(안식년 선교사 훈련), H2K(두번째 안식년 선교사 훈련)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선교사님들과 친밀해질수록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내 일처럼 다가왔다. 얼마 전 P국에서 16년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원이 중단되어 후원자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T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어린 MK를 위한 작은 후원금을 보내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Acts29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사 870명을 위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줄 것을 권면하고 싶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으로 육체적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현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급성치통으로 한국에 긴급하게 오셔서 진료를 받은 일도 있다.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몸으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진료와 지원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특히 의료인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

권사칼럼

모든 순간이 전도의 기회!

강어수 권사
(용산공동체)

“언니, 내가 음식을 먹으면 토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언니, 외출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신혼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절에 다니는 동생과 그동안 조금 소원했었는데, 그래도 다섯 명의 언니 중에서 내게 SOS를 보낸 것이 고맙다.

“언니가 차표 예매하고 연락할게.” 부산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다. 배가 고파서 국밥이라도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밥을 해 놓았으니 바로 오라고 했다. 택시를 타고 동생 집으로 갔다. 전날 해 놓은 것 같은 밥과 물에 씻은 김치볶음으로 요기를 했다. 숨조차 힘들게 쉬면서 벽에 기대앉은 동생이 쓰러질 것만 같았다. 뱃가죽이 등에 붙은 동생의 배를 쓰다듬어 주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빛을 동생에게 전하기로 했다. 어둠은 빛을 보면 두려워 도망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대상 13:14).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으면 병마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유창한 기도문이 아니라도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다.

며칠 동안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이고, 동생이랑 집 주변을 산책하며 설교를

듣고, 찬송도 했다. 종일 하나님 이야기로 힘을 주고 사랑을 전했다. 동생이 웬만큼 회복되어서 나는 집에 돌아왔다.

집에 온 지 며칠 뒤 동생이 다시 위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다고 했다. 나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동생을 돌봐 주었다. 주일 날은 함께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새신자 등록을 해 주었다. 동생은 교회가 처음이 아니라 거부하지는 않았는데, 힘이 없어서 예배를 오래 앉아 드리지 못했다. 담당 전도사님을 만나 내가 없는 동안 심방과 기도를 부탁하고 돌아왔다. 동생의 영육이 많이 회복되었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돌아온 뒤 동생은 매주 교회에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면 다른 성도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데 밥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가 잘되었다고 했다. 상냥하고 서울말을 쓰는 동생을 교인들이 잘 대해워서 교회에 곧 적응했다. 또 전도팀을 따라서 전도를 했는데 동생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이 나 있었다. 교회에 잘 적응하는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든 순간이 전도의 기회임을 깨달았다.

내가 세 번째 동생 집에 갔을 때 금요일아침에 배에 참석했다. 전도사님이 동생을 잘 챙겨 주셨다. 밥도 못 넘기고, 잠도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던 동생이 잠도 잘 자고, 매일 새벽 일어나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니 감동이다. 천국에서 잃어버렸던 양으로 인해 벌여질 잔치를 생각하니 나도 기뻐다. 동생이 다 나은 이후에도 나는 커피 쿠폰과 과일 등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생 남편은 아내가 아플 때 돌봐 준 나를 부모님처럼 생각한다. 6월 초에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갈빗집 예약을 하고, 손님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 어느 권사님이 나눠주신 간증이 기억난다. 딸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권사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이 너무 좋아하기에 환영해주었다고 한다. 전화번호를 받아서 저장하려는데, 권사님은 탐탁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망설이던 권사님의 마음속에 문득 어떤 단어가 떠올랐고, 권사님은 딸의 남자친구를 이름 대신 그 단어로 저장했다고 한다. 그렇게 저

장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딸의 남자친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오는 날에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집에 올 거예요. 함께 저녁 먹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의 선물과 SNS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년이 흘러 그 하나님의 선물이 사위가 되었다.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개척교회를 섬기는 신학교 후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자기 교회에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성도님이 있는데, 그분의 사춘기 딸이 여성 위생용품과 학용품 지원받을 만한 곳이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지인들로부터 비슷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

하나님의 선물

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뜻밖의 선물로 여기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매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다. 마음을 담은 편지도 동봉했다. 그렇게 마음으로 품게 된 아이들,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30명이나 된다.

이 지면을 빌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자랑하고 싶다. 순천 SOS마을에 사는 재석(가명)은 베이비박스 출신이다. 재석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군인이 되고 싶다며 하사관을 준비하고 있다. 나중에 자신처럼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며 수줍게 고백했다. 금산에 사는 하연이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비닐하우스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연이는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고 학교에서도 전교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세대 에스더 같은 아이로 자라는 하

연이가 참으로 기특할 뿐이다. 탈북청소년 수련이는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되었는데, 지난해 아버지가 암으로 먼저 소천했다. 힘들고 낯설고 외로운 한국 생활이지만 신앙의 힘으로 용기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장애가 있는 다솔이도 빼놓을 수 없다. 다솔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인데 고국으로 떠나버렸다. 알코올 중독 아빠는 다솔이를 방치했다. 다솔이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모 대신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다. 그분들 덕분에 다솔이는 찬양을 좋아하고, 미소가 늘 떠나지 않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시간과 상황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만난 아들 딸 30명은 마음으로 품은 선물이다.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도 있다. 바로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하며 만나는 성도님들이다. 뜻밖의 선물,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모두에게 빛진 인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은사가 잘못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은사가 소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 백만 명 정도고, 로마에 있던 가정 교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빛진 인생이라는 심정 때문에

셋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절히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는 모두에게 빛진 인생이라는 바울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14~15절).

여기 그리스 사람, 미개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당시 사람들을 구분하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바울은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빛을 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빛을 쬔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것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아야 한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값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시 116:12)”하는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갚았다’는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못 갚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자녀들이 못 갚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빛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빌려주거나 갚거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빛진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되기를 거절한다면, 전해

주지 않아서, 말해주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두에게 빛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빛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빛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아직 이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은혜를 나에게 갚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빛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선교의 근거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에 빛을 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왜 빛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빛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빛진 마음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기근과 포위로 인하여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문 앞에 있었던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성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면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지만, 받아주면 살길이 있다. 아람 군대에게 가는 것이 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대 진영이 비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도망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배고픔을 달래고, 그들이 평소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입고, 즐기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문지기들은 이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쳤고 왕궁에도 보고했습니다”(왕하 7:9-11).

기쁜 소식, 자유롭게 된 소식, 우리를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빛진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빛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전해야 할 소식을 안 사람들이 되었기에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을 깨닫고 누리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빛진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15절).

로마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혀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전한 서신이었습니 다. 이미 믿는 사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격 앞에 떨며 예수님을 믿습니 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가치관,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겉은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내면은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삶입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기쁨을 잊고, 선교적 헌신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내면이 복음화되어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빛진 공동체요, 빛진 인생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건딜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고,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복음을 상기하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엄준 센터장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2021년 8월, 온누리 복지재단이 전국 최초의 1인가구지원센터인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홀로 서 있는 1인

가구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다해 걸어가고 있다. 전국 40%, 서울시 43%, 서초구 35% 정도를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싱글라이프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가 만나는 1인 가구들은 지상과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에서 비추는 화려한 싱글라이프와는 달리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하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눅 14:12-14).

이 말씀처럼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여러 사연으로 혼자이거나 혼자가 된 1인 가구들에게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해 다가가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살펴보고 식생활을 지원하는 ‘건강 돌봄 영역’, 1인 가구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 돌봄 영역’,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생활 돌봄 영역’, 자기계발과 교류를 지원하는 ‘관계 돌봄 영역’ 등 12개 생활맞춤형 ‘서초 싱글싱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인 가구들이 보다 행복하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또 하나의 가족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혼란과 위기로 내몰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은 1인 가구들에게 더 없는 공포이자 두려움이었다. 1인 가구들은 홀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양재 온누리교회 대학부와 함께 ‘코로나19, 재택치료 안심프로젝트 173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상자의 안부확인 위한 음성메시지 발송, 안심 5종 키트 제공(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손소독제, 체온계, 종량제 봉투), 안심 한 끼를 위한 배달앱 이용권 등을 제공해서 1인 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약 하나 구하기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의 ‘173특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종류별로 세심하게 담긴 비상약품들과 상담해준 직원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가족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

이었습니 다.”

20대 주빈 김사랑(여) 씨의 고백이다. 이처럼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 어려움과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선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문고리가 고장 나서 혼자 고칠 수 없을 때,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사할 엄두가 안 날 때, 삶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을 때, 설날에 딱딱한 그릇 나눠 먹을 사람이 그리울 때 서초1인가구지원센터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들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 그들의 일상 속으로 걸어가고자 한다. 그 걸음에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과 후원이 더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문의: 02-2155-8281, 8283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5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402호, 매월 첫주 군포하나로센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5: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과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과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땅 11:00 706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6월 개강)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CMN 미용스쿨 초급반 모집 내용: 가위 사용법, 기초 컷팅, 기본파마 일시: 6월 3일~28일(매주 화, 금), 양재 오전 반 오전 10~12시 양재 JDS홀, 서빙고 오후 반 오후 2시~4시 서빙고 B102호 수강료: 8만 원(간식 제공) 재료비: 20만 원(가위 세트, 파마 도구 일체, 컷트보 등) ※재료가 있는 분은 제외 신청: 문자 또는 이이스쿨 문의: 정선 팀장(010-9034-5369)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집 1. 양지Acts29비전빌리지 단체급식 업무 근무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 조리사자격증 우대 2. 45인승 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근무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자격: 대형1종 면허 소지자(경력 3년 이상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선호 총무팀장(02-3215-310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0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체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집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일대일양육자반 양재 주일 박동현 장로반 신청: 6월 4일까지 일시: 6월 5일~9월 25일 매주일 1시 30분~4시 장소: 양재 이스라엘홀 문의: 02-570-7349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담당: 박사무엘 목사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문의: 010-9927-4224 제82회 성령수련회 일시: 6월 18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이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	---	---	---	--

부 천 O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30 / 3부 오후 2:00 / 대 학청년 오후4:00(대청예배) /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 유치부 9:00, 11:30/ 유년부 9:00,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 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 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3층 기쁨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3층 온라인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기쁨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오전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 주 수 오후 8: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 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 전 O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 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 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 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과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 (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 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 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 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 주 수 오후 1:30 3층 과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 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과워웨이브 11:30 3층 과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과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오전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야심야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 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	---	---	--	---	--	--	--

결혼 6월 4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들 김선호, 황인경(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김동원(온누리교회) 오석환, 박유정(대림, 온누리교회 집사)의 딸 오세린(온누리교회)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점심 배식 지원, 손소독제 및 비접촉세제 등 계 등 방역용품 후원 문의: 신경자 행정담당(02-6951-0329)	재 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천 5/19(목) 마포 김명원 권사 모친상 고 차동숙 5/21(토) 일산 송재현 집사 모친상 고 박용덕 5/21(토) 강촌 김현숙 성도 모친상 고 김인호 5/21(토) 도곡 윤선진 권사 시부상 고 강신태 5/22(주일) 가정사역 이성재 성도 부친상 고 이봉년 5/22(주일) 용산 정도연 성도 부친상 고 정병순 5/22(주일) 한강 조성국 성도 부친상 고 조준행 5/23(월) 박찬일 성도 부친상 고 국옥례 5/23(월) 송파A 신동면 성도 모친상 고 곽이순 5/23(월) 송파A 계봉오 성도 모친상 고 이성연 5/23(월) 서초D 이계성 성도 부친상 고 이준호 5/25(수) 양천 고혜화 성도 모친상 고 나순자 5/25(수) 용산 이광열 집사 모친상 고 김영희
6월 4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들 김명식, 이미정(안산동산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김건희(안산동산교회) 김성하, 김영미(온누리교회 권사)의 딸 김서영(온누리교회)	서초구가족센터 '오로리가족' 회원 모집 대상: 서초구 및 인근지역 한부모(이혼, 비혼, 사별 등) 및 미성년 부모 가족 내용: 회원가입 후, 부모자녀관계향상 문화 프로그램 및 부 모교육 진행(개설시 별도 신청) 기간: 모집 연중 상시 문의: 교육문화팀(070-7477-2612)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업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천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 시간: 11:20~13:30 문의: 관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2: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등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두란노서원

첫 달엔 무료

du+ duplus

크리스천 콘텐츠를 구독하다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지금! 구독으로 시작되는 디지털 플랫폼



회원가입 하고
2,000 포인트
받으세요!

2022.5.20-6.30

구독이
처음이세요?

4가지 멤버십
구독 플랜 중에서
나에게 맞는
구독 플랜을 선택하시면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요.

두플에만 있다!
온리Only
콘텐츠

성우가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부터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클래스까지
오리지널 복음 콘텐츠를
경험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서재 &
아카이브

보고, 듣고, 기록하며
신앙 루틴을 만들고
필요한 성경·목회 자료를
검색하세요.
생명의삶부터 PLUS까지
모두 이곳에! (2022년 1월호부터)

함께하면
감동이 2배,
커뮤니티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성경일독 #모닝큐티
#매일기도 #한달독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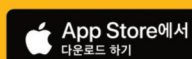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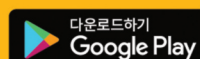
단체 구독 문의 1년 단위

신앙 성장을 원하는 모임, 교회, 선교단체 등의 단체 구독을 기다립니다. duplus@duranno.com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duplus 두플러스는 두란노서원에서 시작하는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